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9월 9일(화)
성인 알파 초대만찬

9월 13일(토)
청년 알파 초대만찬

9월 21일(주일)
제직회

9월 28일(주일)
교육위원회
일광절약제 시작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1-3부 예배는 김은호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류교회
원로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3. 오늘 4부 예배는 김명선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워십디렉터)
4. 당회 리트릿: 9.12-13, 로도루아
5.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9/10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

수요예배 한우리베이직 하이델베르크 주제설교

	주 제
1주	이 지식을 아는 유익 (59-64문)
2주	그 신뢰의 수단(1) 세례 (65-74문)
3주	그 신뢰의 수단(2) 성찬 (75-82문)
4주	그 신뢰의 수단(3)설교와 권징 (83-85문)
5주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 (86-91문)
6주	십계명 1부: 하나님 사랑 (92-103문) 십계명 2부: 이웃 사랑 (104-113문)
7주	기도란? (114-119문)
8주	주기도문 1부 (120-124문) 주기도문 2부 (125-129문)

제34기 알파코스 게스트 모집

▪ 초대만찬: 9월 9일(화) 6:00pm

지금보다 나은

그 이상의 삶이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와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이종길집사 021 194 8008

교육부서

- 약속의 나라 성경학교: 9.26(금) - 28(주일)
- 비전주니어: 국내 아웃리치
9.27(토)-28일(주일) 로도루아, 해밀턴 지역
- 비전시니어(Y11-Y13): 홀리데이즈
MISSION: I'MPOSSIBLE, 9.20(토)-21(주일)
- 비전시니어(Y11-Y13): 국내 아웃리치
10.2(목)-4일(토) 타우랑가, 해밀턴 지역
- 교육위원회: 9.28(주일) 1:30pm 비전홀

전도부

오늘 거리전도는 타카푸나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3시에 시작합니다.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모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9	07	서울, 빛의 마을 / 캄보디아늘푸른
	14	캄보디아바라크 / 로DEM
	21	예멘 / 주일여자 제자반

교구별 연합예배

교 구	일 정	장 소
3 교구	9.19(금) 7:00pm	본당

교우동정

- 결혼
이창호 군과 김한나 양이 지난 6일
혼인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
오계주 집사가 지난 3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최출리아 성도의 모친(김상녀 권사)께서
지난 5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1. 마귀 들과싸울지라죄악 벗은형제여담대 하게싸울지라저기
2. 마귀 들과싸울지라죄악 벗은형제여고함 치는무리들은흥한
3. 마귀 들과싸울지라죄악 벗은형제여구주 예수그리스도크신



악한적병과심판날과멸망의날네가섰는눈앞에곧
 마귀아닌가무섭고도더러운죄모두떨쳐버리고주
 팔을벌리고너를도와주시려고서서기다리시너



다가오리라 영광영광할렐루야 영광영광할렐
 예수불들라
 어서나오라



루야 영광영광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DEM	김승기	21575899	온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김지석	0210302829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중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윗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고타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경	272008546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벤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참빛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벤에셀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코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ell	심정임	2102386602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이것이 바로 영력이다 (왕하 6:10-19)

1. 이번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아프가니스탄</p>	<p align="center">“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 하여 건지리라” 지진으로 800명 넘게 숨겨… 피해 규모 늘어날 듯</p>
<p>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800명이 숨지고 2,800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과 국제 구호 단체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진은 전날 밤 11시 47분경 남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규모 6.0으로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이 취침 중이던 시간이라 피해가 더욱 컸다. 탈레반 정부는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800명, 부상자는 2,800명에 달한다며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p> <p>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 맨손으로 돌과 흙을 치우며 구조에 나서고 있으며, 군과 경찰도 인명 구조와 긴급 지원에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피해 지역이 산악 지형과 고립된 마을들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사상자 집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주민은 여전히 무너진 잔해 속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출처: 로이터, 기도24·365본부 종합).</p>	
<p>한국</p>	<p align="center">“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노라” 디지털 혁명 시대, 교회의 새로운 사명</p>
<p>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신앙과 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최근 열린 학술회의와 실제 교인들의 경험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원장 신원하)은 지난 25일 서울 삼일교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 교회는 외로움을 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p> <p>실제 조사에서도 AI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학습이나 프로그래밍보다 ‘심리상담과 감정 지원’, ‘인생 계획’, ‘가치 탐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AI 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정신적 부작용도 보고된다. 미국 UCSF 정신과 키스 사카타 박사는 “올해 들어 AI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고 입원한 사례를 12명이나 목격했다”고 경고했다. 교회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을 존중하되,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p>	
<p align="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명 피해를 당한 아프가니스탄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디지털의 발전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